법인세 환급금 70억 돌려 받고 49억도 환수절차 착수

광주시 제2순환도로 1구간 2019년 재정지원금 130억원 절감

광주시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법인세 환급금을 되돌려받으면서 2019년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금이 대폭 감소했다. 향후 법인세 인하로 인해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요금 인하 등 시민,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2016년 협약 변경 과정에서 갑자기 운영업체의 법인세를 지원하기로 한 배경을 밝히고, 재정지원금 추가 인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구간의 경우 운영기간 만료시기(2028년)가 다가옴에 따라 투자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이하 맥쿼리)가 100% 투자한 운영업체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재정건전성 파악 등에도 광주시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법인세 대납 논란은 여전
맥쿼리와 분쟁 불가피
기형적 운영 구조도 주목해야
市, 통행료 인하는 불가 입장

◇2019년 재정지원금 132억원 절감…법인세 논란은 계속될 듯=광주시가 지난 2016년 12월 맥쿼리와 기존 1구간 협약을 변경하면서 작성한 '재정지원금 지급 현황 및 예상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예측 지원금은 251.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실제 지원금은 129억원에 그치면서 132억원을 남길 수 있게 됐다. 줘야할 현금을 아끼면서 그만큼 재정 운용에 탄력이 생겼다. 맥쿼리가 설정한 운영업체 대출금 이자율(선순위 10% 후순위 20%)과 관련 국세청과의 소송에 승소하면서 법인세가 앞으로 크게 줄어 지원금 규모가 추가 감소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법인세 대납과 관련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와 맥쿼리는 2016년 12월 기존의 최소수입보장방식(MRG)을 '대안적' 투자비보전방식(MCC)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는 사업운영비(법인세, 운영비, 신규민간투자수익금, 신규민간투자상각액 등)에서 실제통행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재정지원대체자금 원금 및 이자 등을 시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법인세는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경감단에서 끝까지 사업운영비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제외됐다가 협약 체결 막판에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공인회계사 A씨는 "법인세는 당연히 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회의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는데, 법인세를 시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후 재협상에 나선다면 지원금을 더 줄일 수 있는 명분이 광주시에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광주시가 되돌려받아야 한다고 지적한 119억여원 가운데 지난해 70억원에 이어 올해 49억원도 환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협의를 위해 내부 입장을 정리중이며, (맥쿼리와의)협상이 어려우면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구간 운영 만료 2028년, 운영업체 적자 누적도 주목해야=1구간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광주순환도로투자(주)로, 맥쿼리가 100% 투자했다. 맥쿼리는 이 업체에 선순위, 후순위 대출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아가 수익을 챙기고 있다. 맥쿼리가 공개한 '2019년 3분기 재무실적 및 투자법인의 운영성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1구간에서 2017년 395.5억원, 2018년 477억원의 수익(조정된 영업수익)을 얻었다. 이는 광주시 재정지원금 각각 169.4억원, 264.5억원을 크게 초과한 것이다. 2019년 12월 작성한 한 신용평가업체의 광주순환도로투자(주) 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운영업체의 기업평가등급은 '신용능력이 보통 이하이며 거래안정성 저하가 예상돼 주의를 요하는 기업'인 CCC+에 해당한다. 맥쿼리에 10~20%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2018년 12월 말 기준 자산(1499.5억원)보다 부채(2394.8억원)가 895.3억원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회계 처리에 대해 한 전문가는 "기간 만료 이후 이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지 이해가 안 간다"며 "민자도로 운영업체들이 모두 이 같은 재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영 기간 만료 후 광주시가 1구간을 인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운영업체의 현 재무상태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2028년 이후 문제점은 없을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6km에 1200원 요금 인하 목소리, 시는 불가 입장=앞으로 1구간 재정지원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는 이용객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요금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구간과 마찬가지로 맥쿼리의 자산인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2019년 말 통행료 48%포인트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1구간 역시 재정지원금 감소 폭,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1구간 통행료의 점진적인 인하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당장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면 재정지원금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용자 부담을 줄이면 재정에 압박이 되는 구조에서 요금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가 광주일보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협약 변경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8년까지 13년간 재정지원금 총액이 3857.7억원에서 3009.2억원으로 848.5억원이 감소할 것(시설투자비 제외)으로 추정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추정치는 통행료, 법인세, 인건비 등에 따라 변동폭이 크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 바른미래·평화당에 3당 협의체 구성 제안

"이번주 안에 가동하자"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는 28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향해 "중도개혁세력 통합을 위해 3당 협의체를 구성, 이번주 안에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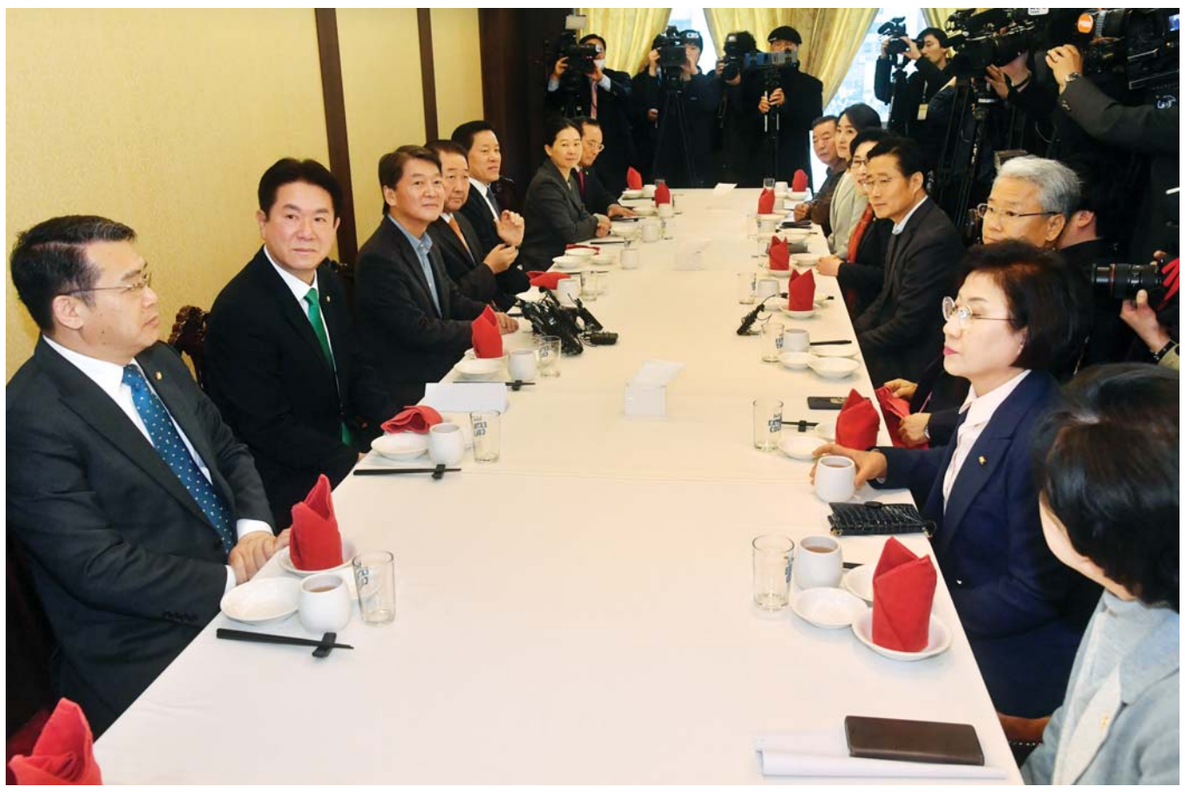
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각 당에서 추천·지정하는 한 사람씩, 3인으로 구성된 3당 협의체를 구성하고 무소속 인사들과 외부 인사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대표는 "호남의 요구는 제3세력 통합을 서둘러 김대중 정치의 맥을 잇고 호남 주도의 정치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라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거듭 촉구했다.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은 전날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만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자신이 비대위원장직을 맡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제3세력 통합에 역행하는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전 대표를 제가 한 번 만났다"며 "통합의 길로 가려고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오찬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손학규 정면충돌 바른미래 '2차 분당' 위기

孫, 安의 비대위 제안 거절
安, 바른미래 의원들과 오찬
당재건 논의 뚜렷한 결론 못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8일 안철수 전 의원이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자신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겨달라는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안 전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바른미래당의 2차 분당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총선에서 세대교체를 위해 미래세대에게 당을 맡기자"며 "안철수 전 의원과 손을 잡고, 미래세대로의 교체를 위해 몸을 바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래세대를 주역으로 내세우고, 안철수와 손학규가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자"고 말했다.

이 같은 손 대표의 입장은 전날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맡거나, 전당원 투표로 비대위원장을 뽑자는 안 전 의원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손 대표는 이날 "당권 투쟁을 위해 손학규 나가라, 그 수단으로 전당원 투표제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전당원 투표제가 당권 장악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되는 건 절대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안 전 의원이) 당 대표실로 와서 만난다는 게 정치적 예의 차원인 것으로 생각했지, 많은 기자·카메라를 불러놓고 제게 물러나라고 하는 일방적 통보, 언론에서 말하는 소위 '최후통첩'이 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 했다"며 "개인회사의 오너가 CEO를 해고 통보하는 듯 말이다"라고 불쾌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젊은 법조인과의 대화'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책임 아니겠나. 그리고 정치에서의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동의 하에 힘을 얻고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며 "당이 위기상황이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당원들의 뜻을 묻자고 한 제안에 대해 왜 당 대표께서 계속 회피를 하시는지 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안 전 의원은 손 대표가 회동 방식과 내용에 불쾌감을 드러낸 데 대해 "전 원래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아니다. 항상 예의를 갖춰서 말씀드리는 사람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안 전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당 재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의 중식당에서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각자가 가진 생각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화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나씩 맞춰가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권은희·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등 안철수계 의원 전원과 김동철·박주선·주승용·이찬열·임재훈·최도자 등 당권파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손 대표와 안 전 의원이 2선으로 후퇴하고 새 지도부를 꾸리는 방안이 거론됐고 안 전 의원의 독자 신당 창당에 반대하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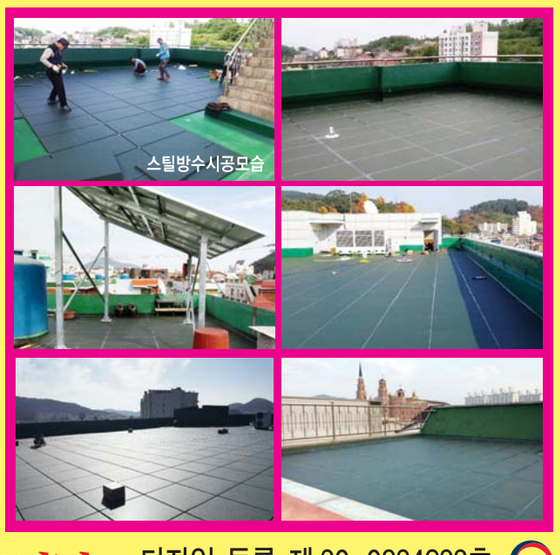
주승용 의원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손 대표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고 안 전 의원도 신당 창당으로 기운 것 같다"며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정말 힘이 빠진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설득해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자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